PR페이지

삼보에이팩, 하이델베르그와 비즈니스 파트너십 맺어

(주)삼보에이팩(대표 김용률)이 지난 5월9일 한국하이델베르그(주)(대표 김범식)와 비즈니스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 서울 장충동에 소재한 서울클럽에서 진행된 파트너십 조인식에서 하이델베르그는 높은 생산성과 인쇄품질, 자연친화 인쇄를 실현하고 있는 삼보에이팩의 뛰어난 기술력이 파트너십 계약을 맺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포괄적 비즈니스 파트너십으론 세계 1호

이날 행사에서 김범식 한국하이델베르그 사장은 "파트너십 체결은 삼보에이팩의 뛰어난 기술력을 입증하는 것으로 하이델베르그의 제품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큰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펠릭스 뮬러(Felix Muller) 하이델베르그 아시아태평양 인쇄기기 담당 부사장은 "파트너십 계약은 한 회사만 이익이 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것으로 삼보에이펙은 하이델베르그의 기술을 보다 잘 활용하고 하이델베르그는 삼보에이펙을 통해 그 기술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며 "2003년부터 매년 1대씩의 인라인 수성코터가 장착된 스피드마스터 CD102 6도 인쇄기를 도입한 삼보에이펙은 하이델베르그의 뛰어난 기술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한국의 인쇄기술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전에는 구매력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pioneer customer 인증을 통해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혜택을 줬지만 이렇게 포괄적인 파트터십 계약은 세계적으로도 첫 번째이다"며 "프리프레스부터 인쇄 모든 공정에 걸쳐 하이델베르그 솔루션을 갖추고 있는 삼보에이팩의 세계적인 인쇄기술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용률 삼보에이팩 사장은 "인쇄기를 도입할 당시에는 많은 고민을 했지만 R&D가 강한 하이델베르그를 선택하게 됐다"며 "현재는 빨라진 공정덕분에 수출에서 큰 효과를 얻고 있으며 기술과 품질의 우수성이 업계에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반적 공정관리 지원

파트너십에 따라 삼보에이팩은 향후, 하이델베르그 개발 신기술이나 솔루션을 다른 업체보다 빠르게 제공받는 것은 물론이고 프리프레스, 프레스, 워크플로 등의 전반적인 공정관리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정받은 삼보에이팩은 신기술에 대한 생산효율성과 인쇄품질 등의 테스트 결과를 하이델베르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삼보에이팩은 1942년에 설립된 포장인쇄 전문회사로 지난 2005년에 ISO 9001과 ISO14001 인증을 받았고 2006년 1월에는 국내 최초로 패키지전용 CTP 및 CIP3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수출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다.

조갑준 차장 kjcho@print.or.kr

좌. 펠릭스뮬러 하이델베르그 아시아태평양 인쇄기기담당 부사장이 김용률 삼보에이팩대표에게 파트너십 인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우. 김범식 한국하이델베르그 사장이 김용률 삼보에이팩 대표에게 하이델베르그 인쇄기 모형을 전달하고 있다.